

#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8. 2(금)

##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### 유럽

- ISIS-K, 파리올림픽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10대 대원 모집
  - 7.25 언론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-K(호라산지부)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틱톡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으로 대원을 모집함에 따라 파리올림픽을 앞둔 서방국가의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고 보도
    - ※ 또한,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월말 올림픽 기간에 생테티엔 관중 겨냥 테러 모의와 연관된 체첸 출신 18세 남성을 기소한 바 있다고 언급
- 프랑스, 올림픽 개회식 테러 관련 19명 체포
  - 7.27 언론은 프랑스 내무장관이 올림픽 개회식과 관련하여 1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,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
- EU, 신나치주의 단체 'The Base'를 테러리스트 목록에 추가
  - 7.27 언론은 유럽연합이 26일 반유대주의 네오나치 단체 'The Base'\*를 테러리스트 목록에 추가했으며, 이번 조치\*\*로 EU 회원국에서 同 테러단체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, 경제적 자원 등을 동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
    - \* 우익 극단주의 조직으로 2018년 '리날도 나자로'가 설립했으며 여러 건의 테러 공격에 가담
    - \*\* 同 조치로 현재 EU의 제한 조치에 적용받는 테러리스트는 15명의 개인과 22개 단체

### 미주

- 美, 암살을 통해 테러단체 지원을 시도한 레바논계 미국인 기소
  - 7.25 언론은 지난 '22년 뉴욕에서 엿작가 「루슈디」 암살에 실패한 후 체포된 레바논계 미국인 「마타르(26세)」가 헤즈볼라에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어 테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다고 보도
    - ※ 「루슈디」는 자신이 출간한 '악마의 시'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으며, 현상금(46억)이 걸리기도 했었음

## 중 동

- 이스라엘,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들 테러 협박 메일 수신
  - 7.25 언론은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“1972 뮌헨 올림픽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목표”라는 협박 메일이 이어지고 있어 프랑스가 이스라엘 선수단(88명)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
  - ※ 24일 파르크 데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말리의 남자 축구경기장에는 프랑스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테러 인력을 포함해 1천명 이상의 경찰을 배치

## 아 · 태평양

- 韓 총리, 올림픽 겨냥 테러 선수단·여행객 안전 확보 강조
  - 7.30 언론은 韓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발생을 우려하면서,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
  - \* 韓 총리는 “이스라엘-하마스 충돌이 계속되고 후티반군은 홍해 선박을 공격, 파리올림픽 테러 위협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등 시국이 엄중하다”고 경고
- 홍콩, 중학생 4명 폭탄제조 및 무기관련 혐의로 체포
  - 7.25 언론은 홍콩 경찰이 온라인에서 재료와 장비를 구입,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하고 무허가 총기를 소지한 10대 청소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, 1명은 중화권 마피아 조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도

## 아프리카

- 서아프리카, 무장단체 공격으로 정부군 등 12명 사망
  - 7.28 언론은 무장단체가 서아프리카 베냉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여 정부군 등 총 12명이 사망하였으며,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으나 ISIS 등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이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다고 보도
  - ※ 최근 무장세력들은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국에 이어, 나이지리아로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각 지역에서 대테러 안보 공백과 정세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

프랑스, 최악의 파리 연쇄테러

- '15.11.13 ISIS는 3개조로 나누어 파리 도심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·총기난사 테러 자행, 130명 사망·350여명 부상(한국인 피해無)
    - 특히, 축구장 테러범들은 입장권을 소지한 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보안검색으로 폭탄조끼가 발각되자, 곧장 폭탄을 터뜨리며 자살
      - ※ 테러 직후 경기장에 있던 「올랑드」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 대피
    - 同 테러는 ISIS 주도로 '외국인테러전투원'과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자행한 기획테러로 'ISIS의 반서방테러가 본격화'된 사건으로 평가
  - 테러 직후 프랑스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, 배후를 자처한 ISIS 거점 시리아 락카(11.15)·이라크 모술(11.23)을 공습하며 강력히 응징
    - ※ 다만, 사전에 '콘서트홀·극장 공격' 첩보를 입수하였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說 회자
  - 한편, 11.14 우리 외교부는 佛 수도권 '여행자제(2단계)', 여타 지역 '여행유의(1단계)' 등 여행경보를 발령하고, 우리국민 신변안전 유의 당부했으며
    - 이듬해 국회에서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15년만에 '테러방지법' 제정('16.3.3) 및 대테러센터 출범('16.6.4)에 계기가 됨
- ⇒ 현재 파리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모의·위협 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테러 예방 및 출전선수·관중 등 안전 보호에 만전을 다할 필요

테러 단체 Weekly Terrorism Trends

- < 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(ISIS) >
- (목표/이념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 / 이슬람극단주의
  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 등
  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, 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
  - (활동수법)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('19.3)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북아프리카·아프간·동남아 등지로 이동, 재건모색
  - (주요동향)
    - '01.9 미국 항공기 납치 후 뉴욕 등에서 공중 테러 자행(2,996명 사망)
    - '18.7 시리아 스웨이다에서 총기 난사 및 자폭테러 자행, 246명 사망